



즉시 배포용: 2018 년 11 월 2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증오범죄대책팀에 유니언 템플 오브 브루클린(UNION TEMPLE OF BROOKLYN)에 남겨진 반유대주의 낙서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

“브루클린의 한 예배당에 반유대주의 낙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역겨웠습니다. 피츠버그의 트리 오브 라이프(Tree of Life) 유대교 예배당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아직도 온 나라가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우리 뉴욕 주민은 유대인 지역사회와 단합하여 모든 형태의 증오에 반대합니다.

뉴욕에서는 우리의 법이나 정신에 있어 차별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뉴욕주 증오범죄대책팀에 이 가증스러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인을 색출하여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로서 종교 시설이 폭력과 편협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종교 기반 기관을 비롯한 뉴욕의 비공립 학교 및 문화 센터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1,000 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혐오스러운 언사와 극악무도한 폭력이 병적인 수준에 이르러 미국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뉴욕에서는 공동체의 조화와 결속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를 탄탄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지켜왔으며, 우리는 항상 증오와 차별에 맞서 함께 싸울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